엎친데 덮친격…헌혈의 집 발길 ‘뚝’

‘헌혈의 집’ 충장로센터 가보니

광주·전남 코로나19 1만3천명 확진…재확산에 방문 뜸해

추석 연휴 혈액보유량 줄어들 것…언제든 감소 위기 있어

“혈액은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추석까지 다가오는데 혈액이 부족할까 조바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17일 오후 2시께 광주·전남 헌혈의 집 충장로센터. 이곳에 설치된 15개 가량의 헌혈 침대에는 아무도 누워 있지 않은채 텅 비어있었다.

우려와 걱정속에 30분 가량 지나자, 반갑게도 성인 두 명이 이곳을 찾았다.

이들을 대상으로 헌혈 전자문진표가 작성되고 헌혈 상담이 이어졌다. 이때 헌혈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감염병에 걸린 적 있는지, 헌혈제한지역 등을 방문했는지 등의 확인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진행되는 헌혈은 전혈의 경우 10분, 혈장 헌혈은 30-40분, 혈소판 헌혈은 40분에서 1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이날 전혈을 한 이모(28·여)씨는 “예전에 헌혈하고 받은 헌혈 증서로 친구를 도와줬던 기억이 있다. 이후로 헌혈을 하면 내 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헌혈증서로 지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생각에 8년간 계속해오고 있다”면서 한 손으로 침대에 놓인 헌혈 증서를 들어 보이며 미소를 지었다.

반대쪽 침대에서 혈소판 헌혈을 받던 한 시민(50대)은 “환자는 계속 생겨나고 동시에 피도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5년간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건 곧 건강하다는 의미여서 기쁜 마음으로 1년에 10번 정도 한다”며 웃으며 말했다.

이날 오후 3시까지 헌혈의 집 충장로센터를 찾은 시민은 14명, 코로나19 이전에는 50명도 거뜬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줄어든 숫자다.

현재 광주전남 혈액원이 보유 중인 혈액은 17일 기준 8.5일분이다. 이는 적정 보유량 5일분을 넘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혈액원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가 광주·전남 전역에 재확산되면서 올해 5월 코로나19로 닫았던 문을 개방한 학교 등이 단체 헌혈을 중단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혈액원을 찾는 발걸음이 줄어들 수도 있고, 격리 해제 이후 10일간 채혈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헌혈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9월 9-12일) 기간 헌혈을 하는 이들이 부쩍 줄어들기 때문에 ‘헌혈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귀띔했다.

광주전남 헌혈의집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명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는 사회적 책무의 마음으로 헌혈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다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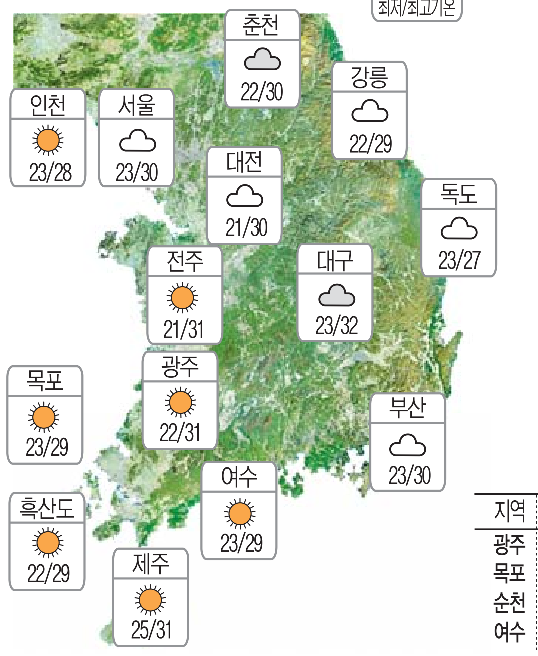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헌혈자들이 급감하는 등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7일 광주 동구 헌혈의 집 충장로센터가 한산함을 보이고 있다.

/김다인 기자

오늘의 날씨

▶범례: 지역 / 날씨 / 최저/최고기온

해뜸 05:54 해짐 19:18
달뜸 22:59 달짐 12:14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70 — 마스크 챙기세요
- 빨래 50 — 실내건조 좋아요
- 세차 30 — 급하지 않으면 미루세요
- 운동 80 — 준비운동은 충분히

지역	강수확률(%)
광주	0-20
목포	0-0
순천	0-0
여수	0-0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6:25	11:32
	18:59	23:52
여수	00:44	06:53
	13:20	19:04

서해 남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북동-동/0.5-0.5m
	먼바다	북동-동/0.5-1.0m
오후	앞바다	남-남서/0.5-0.5m
	먼바다	남-남서/0.5-1.0m

남해 서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남서-서/0.5-0.5m
	먼바다	남서-서/0.5-1.5m
오후	앞바다	남-남서/0.5-0.5m
	먼바다	남-남서/0.5-1.5m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기(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8월 19/금	(22/32)	(23/29)	(24/30)	(22/30)	(23/33)	(27/34)
20/토	(26/31)	(25/31)	(25/29)	(25/32)	(27/34)	(28/34)
21/일	(24/32)	(24/31)	(22/30)	(23/32)	(24/33)	(27/32)

▶날씨안내 : 국번없이131

코레일 호남권 추석 승차권 오늘부터 예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호남·전라선 추석 승차권 예매가 18일부터 이뤄진다.

예매는 PC와 모바일 등을 통해 100% 비대면으로 창쪽과 안쪽 등 전좌석을 판매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1인당 1회 6장(왕복 12장)까지 예매할 수 있다.

모바일 예매를 위해서는 ‘코레일톡’ 앱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클릭해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연결하거나 웹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입력해 직접 접속해야 한다.

예매 기간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한 승차권은 18일 오후 3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돼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잔여석은 18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뿐 아니라, 역 창구 등 오프라인에서도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다.

/오복 기자

50억 이상 건설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 ‘무색’

사고 빈번…노동청·안전보건공단 예방 활동 강화

전국 50억원 이상 규모 건설현장 가운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립 대상 사업자에서 사망 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발표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총 6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월별로는 ▲1월 14건 ▲2월 7건 ▲3월 10건 ▲4월 5건 ▲5월 8건 ▲6월 7건 ▲7월 1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립 대상 건설현장에서 4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비율로는 66%에 달한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관내 ‘50억원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선다.

특히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사고 예방 교육프로그램도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건설현장 주요 사망사고 기인물별 핵심 안전조치 등을 안내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관계자는 “교육활동 이외에도 실효성 높은 위험요소에 대한 감독 및 점검을 지속해 사망사고의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남구, AI 방역로봇 통해 코로나19 예방

광주 남구는 17일 “안전한 종합민원실의 이용을 위해 광주지역 자치구 중 최초로 AI 방역로봇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AI 방역로봇은 인체에 무해한 24시간 소독방역 시스템 운영으로 종합민원실에 배치됐다. 공기 중 각종 세균과 먼지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플라즈마 살균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기 정화를 비롯, 환경 친화적인 빛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UVC 살균 기능을 갖추고 있다.

남구는 바이러스 살균을 위해 대기 중 소독제를 분사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러스 입자는 공기 입자보다 커 바닥으로 가라앉고 민원실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관계로 출입문이 수시로 개폐돼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다.

남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민원인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AI 방역로봇을 도입하게 됐다”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최상의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 민원실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동구,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광주 동구가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에서 투자계획 평가 최고등급으로 선정됐다.

17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한 가운데 동구가 관심 지역 중 투자계획 평가 최고등급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내년까지 53억원을 지원받는다.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10년간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모든 인구 감소지역 및 관심 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돼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 환경분석에 기반해 산업,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계획 평가 등급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과 관심 지역으로 나눠 금액을 배분받게 됐다. 배분 금액을 받는 지자체 5곳 중 관심 지역에 선정된 동구는 최대 53억원(올해 23억·내년 30억원)을 지원받아 ‘충장상상큐브’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복 기자

CMYK